삼성물산 패션부문, SFDF 수상 디자이너 모집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운영하는 삼성패션디자인펀드(SFDF)가 2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18회 SFDF 수상 디자이너'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해외 컬렉션에 참가하고 있거나 해외 판매 실적이 있는 한국계 신진 패션 디자이너다. 론칭 5년 이하의 독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과 학력에 따른 제한은 없다. 평가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디자인 디렉터 등 내부 전문가와 외부 패션업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브랜드 정보, 디자이너 소개, 룩북, 샘플 등을 심사한 후 11월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디자이너에게는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와 함께 비이커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컬렉션 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코오롱FnC 브렌우드 '차가운 티셔츠' 출시

코오롱FnC의 남성복 브랜드 브렌우드가 '차가운 티셔츠'(사진)를 내놓았다. 냉감 반팔 티셔츠로, 면 100% 고밀도 원단을 사용해 부드러운 촉감과 청량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또 은은한 광택을 주는 실켓 가공을 통해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한다. 땀이 나도 몸에 감기지 않고 탄탄한 형태감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며, 데님 바지와 매치하면 단정하고 캐주얼한 오피스룩을 연출할 수 있다.

NS홈쇼핑, 소상공인 제품 특가 '홈캉스 기획전'

NS홈쇼핑이 31일까지 온라인몰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홈캉스 준비 완료 기획전'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손잡고 24개 소상공인 업체의 약 400개 홈캉스 아이템을 특가로 소개한다. '이상정의 명장 언양식 불고기한판', '탐라인 제주 흑돼지 오겹살 구이세트', '여수 돌산갓김치', '양주골 파김치' 등이 대표 아이템이다. 최종 실 결제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연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 키우는 농심

취임 1주년 맞은 신동원 '뉴 농심' 속도낸다

미국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도전
현지 제2공장 가동, 생산력 높여
비건 레스토랑 오픈 신사업 확장
입소문 타고 月방문객 1000명↑

신동원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은 농심이 라면 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비건 레스토랑 등 신사업을 전개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뉴 농심' 만들기를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 제2공장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신 회장(왼쪽). 사진제공 | 농심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신동원 농심 회장의 '뉴 농심' 만들기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전체 매출의 80%에 달하는 라면 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비건 레스토랑 등 신사업을 전개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4월 말 연간 3억5000만 개 라면 생산 능력을 갖춘 미국 제2공장을 가동하며, 미국 라면시장 1위 목표를 제시했다. 5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문을 연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 키친'도 순항 중이다.

●미국 제2공장 본격 가동

먼저 4월 말 대량의 라면 생산 능력을 갖춘 미국 제2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미국 라면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1위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쿠카몽가에 위치한 농심 제2공장은 약 2만6800㎡ 규모에 용기면 2개와 봉지면 1개 라인으로 구성했다. 연간 3억5000만 개의 라면 생산이 가능하다. 제1공장까지 합치면 미국에서 연간 라면생산량은 8억5000만 개에 이른다.

신 회장은 "1971년 미국시장에 처음 수출을 시작했고, 2005년 제1공장을 계기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며 "제2공장은 농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해줄 기반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라면시장 1위에 오르는 것은 물론 글로벌 1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진하자"고 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농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23.3%로 일본 토요스이산(49.0%)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3위인 일본 닛신은 17.9%로 농심과 5%p 이상의 점유율 차이를 두고 뒤처져 있다.

주목할 것은 농심의 상승세다. 2017년 일본 닛신을 꺾은 데 이어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며 3위와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다. 회사 측은 "농심의 지난해 미국 매출은 3억9500만 달러로, 2025년까지 8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2공장 가동으로 공급에 탄력을 얻는다면 수년 내 1위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비빔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배홍동비빔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80억 원을 달성했다. 무더위가 시작된 5월 이후 매출 증가율은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올해 배홍동비빔면의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30% 높은 수준인 300억 원으로 잡고 있다"며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는 소비자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할 것"이라고 했다.

●품격있는 비건 메뉴로 승부

5월27일 오픈한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 키친(Forest Kitchen)'이 개점 초반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6월 한 달간 방문객 1000명을 돌파했고, 사전예약제 운영에 주말 예약률이 100%에 달했다. 품격있는 비건 메뉴를 제공한다는 콘셉트가 소비자의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된다.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서 "고기 없이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비건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버렸다", "비건이든 아니든 꼭 와봐야 하는 식당"이라는 리뷰와 함께 평점 5점 만점에 4.8점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인기 메뉴는 코스 첫 요리이자 레스토랑 이름이 담긴 '작은 숲'이다. 숲으로 꾸민 트레이에 제철 채소를 이용한 한입거리 음식과 콩 커스터드, 콩꼬치 등을 넣었는데, 식당의 정체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야생버섯, 코코넛 등 원재료 고유의 맛을 잘 살려낸 요리가 비건 레스토랑의 매력을 돋보이게 했다. 대체육을 사용한 메뉴는 소스를 잘 활용해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었다는 반응이다.

회사 측은 "비건 레스토랑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감사하며, 완성도 높은 요리와 최고의 서비스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메뉴 개선과 신메뉴 개발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프랑스로 날아간 허영인 회장…유럽 공략 가속

〈SPC그룹 회장〉

글로벌기업 초청 행사에 참석
"매장 확대·공장 건립 등 추진"

허영인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환영 만찬을 주재했고,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등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과 코카콜라, 디즈니, 페덱스 등 250여개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SPC그룹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며, 국내 기업 중 2회 참석한 기업은 SPC그룹이 유일하다. 올해는 허영인 회장과 글로벌사업 총괄 허진수 사장이 함께 참석해 프랑스 사업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SPC그룹은 2014년 프랑스 파리에 파리바게뜨 매장을 열어 현지 소비자에게 차별화한 제품과 콘셉트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INBP(프랑스 국립제빵학교), 에꼴 르노뜨르(프랑스 유명 제과요리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국내에 도입해 프랑스 음식문화를 알리는 등 한국과 프랑스간 경제·문화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한불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비즈니스어워즈 최우수 프랑스 진출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6월에는 프랑스의 샌드위치·샐러드 브랜드 리나스를 인수했으며, 이는 2002년 국내에 마스터프랜차이즈로 도입해 운영한 지 20년 만에 브랜드를 역인수한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회사 측은 "프랑스 내 파리바게뜨 매장을 확대하고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9		6		7			
		4		5		3		6
	7			3			1	
4			7		1			8
	8	6				2	4	
7			4		8			3
	4			7			2	
2		7		4		8		
			2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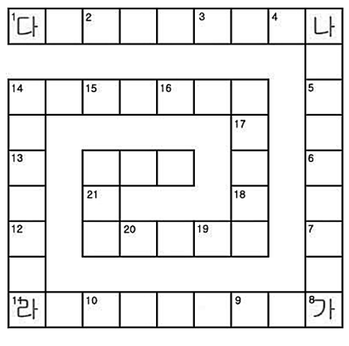
			1		6	7		
	5	8		4			1	
9			8				5	
6				9		8		1
	8		6		4		7	
2		4		1				5
	7				9			4
	6			2		5	9	
		9	5		1			

■ 스도쿠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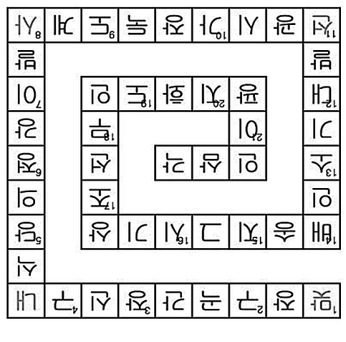
4	9	7	6	8	2	1	3	5
5	3	8	9	4	1	7	6	2
2	6	1	7	5	3	4	8	9
9	4	8	3	7	5	6	2	1
3	5	1	2	8	6	9	7	4
7	2	9	4	6	8	1	5	3
1	8	6	5	9	3	2	4	7
4	3	5	7	2	1	9	6	8
6	7	2	8	3	4	5	1	9
8	1	4	9	5	2	3	7	6
5	9	3	6	1	7	4	8	2

8	4	9	5	6	1	3	7	2
3	6	1	4	2	7	5	9	8
5	7	2	3	8	9	1	4	6
2	9	4	7	1	8	6	3	5
1	8	5	6	3	4	9	7	2
6	3	7	2	9	5	8	4	1
9	1	6	8	7	2	4	5	3
7	5	8	9	4	3	2	1	6
4	2	3	1	5	6	7	8	9

■낱말문제



01.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 02.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3.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물건. 04.학교, 직장, 역 안에 있는 식당."ㅇ내식ㅇ" 05.불쾌한 맛이나 냄새를 피하고 약물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표면에 당분을 입힌 정제. 06.무릎 아래에서 앞 뼈가 있는 부분. 07.남의 머리털을 깎아 다듬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08.병풍 따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독특한 풍경을 그린 그림. 09.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드는 장가. 10.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11.먼저 출발하는 부대. 12.무엇을 기다리도록 마련한 곳. 13.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 14.물품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 그 물품을 받는 장소. 15.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 16.어떤 일을 하기에 아직 때가 이름. 17.둥글고 단단한 재래의 무를 왜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18.사람이 살지 않는 섬. 19.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종이. 20.걸을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막대기. 21.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로 맞닿은 쪽의 발목을 묶어 세 발처럼 하여 함께 뛰는 경기.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가~라** 칸을 이어놓으면 드라마나 영화 제목이 됩니다.